



# 제13차 아시아 품질 심포지엄

● 일시 : 1999년 10월 22~23일      ● 장소 : 일본 오사카 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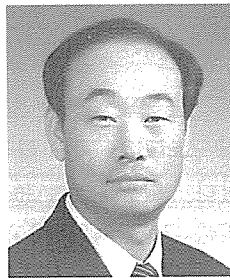
제13차 아시아 품질 심포지엄이 지난 10월 22일부터 2일간 일본의 오사카 공대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의 품질학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아시아의 품질 우월성’이란 주제로 3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특히 치열해지는 대륙간 품질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시아권 국가가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은 이번 회의의 큰 수확이었다. 다음 회의는 2000년 11월 초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기로 했다.

제13차 아시아 품질 심포지엄이 ‘아시아의 품질 우월성 (Asian Quality Excellence)’이란 주제로 일본 오사카시에 있는 오사카 공대 60년 기념관에서 지난 10월 22일 ~23일에 열렸다. 이 대회에는 한국에서 23명, 대만에서 12명, 그리고 일본인을 포함하여 3백여명이 성황을 이룬 대회였다. 이 대회는 한국, 일본, 대만이 번갈아 가며 매년 개최하는 학술회의로, 제1차 대회는 서울에서 1987년에 개최(이 회의의 조직위원장이 필자이었음)되었고, 제2차는 타이페이, 그리고 제3차는 동경에서 열린 바 있다.

## 첫날은 두 곳의 공장 견학

첫날인 22일에는 일본 기업의 품질경영 상황을 직접 보고 배우고 토론하기 위하여 일본품질관리학회가 추천하여 두 곳의 공장(雪印乳業(株)京都工場, 松下電器 大板工場)을 견학하였다. 이 두 곳은 모두 품질경영이 매우 우수한 업체로, 설인유업은



朴聖炫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교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매우 잘 운영되는 업체이고, 송하전기는 TQM(total quality management)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이 견학을 통해 일본 기업의 품질경영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우리 기업에 전수하여 줄 품질경영에 관한 좋은 내용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품질관리에 관한 각종 이론, 예를 들면, 통계적 품질관리(statistical quality control)와 전사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control) 등의 각종 이론이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나 이를 실무에 적용하여 꽃을 피운 곳은 일본이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위의 두 공장은 모범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많이 보고 느낀 유익한 시간이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저녁에는 필자가 한국을 대표하여 아시아 품질 심포지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향후의 일정과 대회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위원회에서 차기 회의는 2000년 11월 2~3일에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열기로 합의하고, 또한 아시아의 몇개국(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을 추가로 초청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참가국수를 10여개국으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두번째 날인 23일에는 하루 종일 엄선된 35편의 논문(한국 14편, 일본 13편, 대만 8편)이 발표되고 토론되었다.

## 3개국서 논문 35편 발표

주로 21세기에 아시아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공통된 내용은 21세기에 아시아인의 삶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아시아 제품의 품질수준을 세계 최고로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논의하였다. 논문의 성격을 학문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대개 통계학, 경영학, 산업공학의 관련 논문들이 비슷한 비율로 발표되었다. 통계학 분야에서는 실험계획법, 관리도, 공정능력지수, 고장률 분석, 통계적 공정관리 등이 발표되었고, 경영학 분야에서는 향후의 품질경영 방향, 정보기술의 발전 방향, 전사적 품질경영의 성과측정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산업공학 분야에서는 품질공학, 국가품질상 제도의 개선방안, 새로운 생산방식의 비교분석, ISO 9000의 효과 등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필자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논문은 일본 동경대학의 노리아끼 가노교수가 발표한 '아시아의 품질 우월성'이란 주제의 논문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시아인은 아시아 내에서의 품질 우월성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적인 품질 우월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는 품질경영을 통한 고객만족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밀레니엄에서는 참신한 품질창조를 통한 고객감동시대가 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삶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논문이었다. 논문 발표가 끝난 후 23일 저녁에는 환영만찬을 가졌고, 우의와 친교를 다지면서 내



13차 아시아 품질 심포지엄이 열렸던 오사카 공대 60주년 기념관 앞에서 한국 참가단의 기념촬영(뒷줄 가운데 왼쪽에서 6번째가 필자)

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폐회식을 가졌다.

### 아시아 국가 협력 필요성 확인

24일에는 주최측이 알선하여 준 일본의 고도(古都), 나라와 교토 관광에 참여한 후 오사카 공항으로 이동하여 서울로 귀국하였다. 나라와 교토를 보고 느낀 점은, 일본과 한국은 문화의 뿌리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불교문화가 참으로 오랜 기간 한국과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이번 아시아 품질 심포지엄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느낀 점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는 유럽권, 북미권, 아시아권으로 나뉘어 21세기에 경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하여 눈에 안 보이는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는 품질에 관한 싸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수한 품질을 만들

수 있어야만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 국가들 간에 품질경영 기법을 상호 논의하고 연구함으로써 서로를 도와주는 장을 만든 것이며, 참가한 모든 국가들에 매우 유익한 대회였다. 품질경영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그 뒤로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등이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상호간에 발전을 저해하는 싸움을 하여서는 안되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같이 발전하는 길만이 다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세계가 지구촌화 되면서 대륙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륙간의 경쟁에서 밀리면 다같이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들간에 상부상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하겠다. ㉟